

# 자매결연 불자회 '신심두배'

### 병불련-공불련 서산서 주민 의료 봉사

### 운불련-생명나눔회 장기기증·화장 적극 홍보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4월8일 충남서산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함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월 2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제 등행렬에 공동으로 참석했다. 그밖에 많은 직장직능불자회들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친목도모는 물론 회원들의 신심을 높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김병주 신도계장은 "직장직능 수행단체들의 교류는 소속회원들에게 불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주어 자연스레 법회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어 중단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최근 서로 다른 직종의 직장직능 불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업무 특성을 살려 합동행사를 펼치는 등 포교·신행활동에 상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교류를 통해 기복적인 신행에서 탈피해 대 사회적인 방향으로 신행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호·이하 병불련)는 4월 8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이하 공불련)와 함께 충남 서산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한 의료봉사와 달리 공불련이 진료장소, 차량 섭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기에 보살행이 더욱 수월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2차례 공불련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달리는 포교사인 한국운전불자연합회(회장 김주현)는 불교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와 4월 8일 충남 서산 황하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 생명나눔 홍보단 2천개를 기증 받은 운불련은 앞으로 회원들의 택시 뒷좌석에 홍보판을 설치해 팸플릿을 비치하는 등 생명나눔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장기기증 154건, 사후 화장서약 91건을 신청하며 부처님 자비도 실천했다.

PC통신 불자모임인 유니텔 부처님나라와 나무누리 부처님마을도 4

## 우리 모임에선

### 의왕시청 법우회 창립

의왕시청법우회(회장 김창렬)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주사 주지 정락, 신복사 주지 세영스님과 주혜란 경기도지사 부인, 박용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법우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 경찰병원 환자위문공연

경찰병원직원불자회(회장 원웅섭)는 병원 경승실, 한마을봉사회와 공동으로 경승 법당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2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봉축기념법회 및 입원환자 위문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 병원 경승실장 혜광스님과 전·의경 및 경찰 입원환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펼쳐진 위문공연은 남강수, 명국환, 현당 등 불자가수와 LMB성어즈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됐다.

### 승만부인회 전통등 전시

성북승만부인회(회장 이정숙)는 21일 성북역 1번출구에서 열차안전운전기원 및 전통등 전시회 참석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해, 기원사 주지 상현스님과 성북지역관리역장 양석옥 씨, 수도권 전철운영팀장 박종택 씨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승만부인회 회원들은 지난 3월 전시회를 위해 성북구 기원사에 모여 전통등을 제작했다.

### 교정인 관음보살상 증수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4월 18일 춘천교도소 대운동장에 모셔진 관세음보살 증수공사를 마치고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하스님과 재가 불자 및 재소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춘천교도소 관세음보살은 1995년 오희창 회장이 소장하여 재임시 조성했으나 훼손이 심해 지난해 10월 증수공사에 착수했다.

### 교불련 봉축 학술대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12일 불교회관 1층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과 김용표 교수,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불교 교육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02)720-6618

## 천년고찰 禪의 향기 '듬뿍'

### 두번째 불교문화기행 40여명 참가



△대각암 주지 묘각 스님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영산홍을 배경으로 선암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이후 16국사를 모신 승보사찰로 역대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수도정진 했던 유서깊은 고찰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정진했던 역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4월 22일 오후 2시 송광사 대웅전. 현대불교신문사가 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지역불교문화기행'에 참가한 40여 불자들은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의 감도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난 후 스님은 국사전(국보 제56호), 승보

전, 대웅보전, 부도탑 등 당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경내 구석구석은 안내하며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자상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선화기인 묘각스님(대각암 주지)의 안내로 하얀 매화꽃과 붉은 영산홍 등 봄꽃들이 만개해 절경을 이룬 선암사도 참배했다.

이번 기행에 참가한 홍미리씨는 "사찰 답사를 몇 번 다녀왔지만 선암사처럼 형형색색의 꽃들과 옛 건축물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사찰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지역불교 문화기행

### 차(茶) 축제 현장을 찾아서

### 5월: 쌍계사·국사암·제다실습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 지리산 자락 하동평야에 싱그러게 펼쳐진 차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은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인 쌍계사를 찾아갑니다.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립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지와 이 절의 창건주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 47호), 대웅전보물 제 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또 한번 불을 지펴 놓으면 49일 동안이나 온기가 식지 않았다는 아차방(阿字房)으로 유명한 천년 고찰 칼밭사도 참배합니다. 국사암 진감선사 부도비(보물 제390호) 앞에서 처음 열리는 다례제 도 흥분한 불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차를 직접 만드는 제다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이번 문화기행에서 다선 일미(茶禪一味)의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 ◇출발: 5월 26일(토) 밤 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비: 5만5천원(초식, 동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주)한화여행

## 불교인권위 양심수 석방·노동자탄압 중지 촉구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는 4월 24일 서울 안국동 김상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양심수 석방 및 정치범 수배해제, 노동자 탄압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민가협후원회, 전국연합 대표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관스님은 "김대중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감옥에 있는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관스님은 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자행한 이무영 경찰청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영화·다도 등 테마 소모임 결성"

### 나무누리 부처님 마을

### 7대시사 정재평씨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21일 나무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마을 제 7대 시사로 선출된 정재평(33)씨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디스 침체되어 있는 부처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시사는 PC통신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지는 신행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은 오프라인 모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수련회에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해 신심을 키우고 영화, 다도 등 주제가 있는 소모임을 결성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질 방침이다. 또한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수행과 자비실천을 통해 침체된 부처님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김두식 기자

## 알림

-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2일 일산 주엽공립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관 1주년을 맞아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031)919-8677
- ▲전통예술 경연대회 =청소년교회연합회는 13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 14회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실시한다.(02)735-8165
-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CD

2001 시연회=고려대장경 연구소는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CD 2001' 시연회를 갖는다.(02)797-0585

## 강좌

▲불교기초교육=조계사는 5월 15일부터 3개월과정 불교기초교육 강좌를 개최한다. 조계사 스님들이 강의할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등을 배우게 된다. 강의는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

## 게시판

작하는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일로 나누어 진행한다.(02)720-1390

## 모집

▲시카고 불타사 주지스님=미국 시카고 불타사는 사찰을 운영할 주지스님을 모신다. 비구계 수지 10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조계종 승적증명서, 비구계수지증명서, 본사주지스님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수행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다. 5월 26일까지 서울 상도동 약수입으로 연락하면 된다.(02)823-0011

## 이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빌딩으로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02)733-7277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서울 종로구 화동 정목도서관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3-1884

#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氣**란?현실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짐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친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기방은 기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 항상 가정에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명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 속 깊숙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활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속사정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꼭 가정에 두십시오.

※ 주지스님 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오.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 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형장(穴場) 명당 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이어법칙을 어기지마라."◆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고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명당 육기방이 확달라 졌습니다.

◆사용지◆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시집, 임자, 절벽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06-6741-1923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명당육기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들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